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4월 10일 ~ 2022년 4월 16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볍씨 소독 철저로 종자전염병을 예방하고 고구마 묘 키우기에 신경 쓰고, 양파 병해충 방제, 과수 적기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텃밭 규모별 적합한 작물을 선택한다.

1. 벼농사

- 볍씨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볍씨받아기(온탕소독기)를 사용하여 30℃에 48시간 담가 소독한다.
-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소독은 완벽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온탕침법은 60℃물 100L에 마른 볍씨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한 후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처리하여 소독한다.
- 볍씨 소독 후 종자 담그기는 적산온도 100℃기준으로 15℃에서 7일 동안 신선한 물로 갈아주어 볍씨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.
- 파종 전 볍씨 싹틔우기는 30~32℃의 어두운 조건에서 보통 1일 정도 두어 싹 길이를 1mm내외로 키우면 적당한데, 싹이 너무 길면 파종 작업할 때 부러지기 쉽고, 싹이 너무 작으면 모 키가 불균일하게 자란다.

2. 밭작물

- 맥류 가뭃피해 우려 포장은 배수구 작업을 겸한 중경 제초 실시로 겉흙의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야 한다.
- 고구마를 덮는 상토의 깊이는 씨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되 너무 깊으면 고구마가 질식하여 부패하기 쉽고 너무 얇으면 건조하여 싹이 나오는 것이 늦어 질 수 있다.
- 고구마 싹이 튼 후 상토가 건조하면 잎이 작고 고구마 형성이 불량한 묘가 되기 쉬우므로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주고, 싹이 5~10cm정도 자라면 따뜻한 날 한낮에 2~3시간 정도 하우스 측창을 열어서 묘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준다.

3. 채 소

- 양과 품종특성 및 온도의 영향으로 추대가 발생한 포장은 해당 포기를 일찍 뽑아내어 주위 다른 포기의 자람을 돕도록 하고, 노균병, 검은무늬병, 잎마름병, 흑색썩음균핵병 등 병해 발생 개체는 즉시 제거한 후 등록약제를 10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방제한다.
- 고추는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 부위가 상승하고 꽃수가 감소하며 꽃의 소질이 떨어지므로 육묘기간 중 햇빛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 주어야 하고 정식할 포장에 주는 밑거름은 퇴비와 석회는 2~3주 전에, 화학비료는 이랑 만들기 5~7일 전에 뿌려준다.
- 황사는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생육 장애를 발생시키므로 황사 발생시 시설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황사가 지나가면 동력분무기로 피복재를 세척한다.

4. 과 수

- 과수 인공수분 적기는 꽃이 핀 후 빠를수록 좋으나, 사과와 경우 중 심화가 70~80%된 직후가 적기이며 배꽃은 40~80%가 피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.
- 하루 중 수분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까지 가능하지만, 화분발아 및 화분관 신장은 20~25℃가 적당하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~4시까지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다.

5. 텃밭 가꾸기

- 텃밭을 가꿀 때는 텃밭의 규모에 알맞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 소규모(7㎡) 텃밭의 경우 생육기간이 짧고 생산량이 많은 상추, 쪽갓, 시금치, 잎들깨 등을 재배한다.
- 중규모(15㎡)의 텃밭은 3~4개 구획으로 나누고 자라는 기간이 비슷한 것끼리 묶도록 하며, 소규모 텃밭작물을 포함해서 배추, 고추, 토마토, 오이, 당근 등을 재배한다.
- 대규모(20㎡이상) 텃밭은 가꾸는 노력이 적게 드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. 중규모 텃밭작물을 포함해서 호박, 토란, 강낭콩, 감자, 마늘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 된다.